

**인터넷, AI시대 건축설계 창작물과 지식재산권 보호**  
**- 건축설계 창작물 표절과 국내 현상설계 당선작 원안변경 사례-**  
염대봉(조선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1. 건축설계창작물의 개념과 유형**

### **1.1 건축설계 창작물의 개념**

- 건축설계창작물은 건축설계 과정을 통해 창작물과 부산물로 정의되며, 건축사법에서 건축설계의 최종산물, 예를 들어 건축물, 설계도서 등으로 정의
- 건축설계창작물은 건축저작물과 동일한 용어로 사용,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토지 상의 공작물인 건축물 또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표현되어 있는 것을 말함(박성호, 저작 권법, 박영사, 2017, p.108)
- 건축설계 창작물(건축저작물)은 미적 창작성이 요구되며, 주택, 오피스, 공장, 상가, 교회, 박물관, 문화관 및 학교건물 등 예술성이 높은 건물
- 뿐만 아니라 교량, 동상, 광장, 정원시설, 내부전기, 설비, 통신 또는 무대장치 및 그 에 관한 건축설계도면에 대해서도 건축저작물로 보호 가능(윤진수, 건축창작물의 지적 재산권 보호체계에 관한 연구, 광운대대학원 법학과 박론, 2018 p.66.)

### **1.2 건축저작물을 구체적 유형**

-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실용성과 기능성이 중요한 요소
- 건축주가 설계자와 사이에 건축설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자가 작성하는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건축주가 아닌 설계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
- 건축주에게는 다만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등 설계도서에 관한 이용권이 유보될 뿐이다 (대법원 2000. 6. 13.자 99마7466 결정 참조).
- 저작권법은 설계도서와 건축물을 모두 건축저작물로 분류하고(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 호)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는 것도 설계도서의 '복제'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같은 법 제2조제22호)
- 도형저작물은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으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함(법 제4조제1항제8호).
- 2차원의 그래픽으로 표현된 것과 3차원의 입체 모형으로 표현된 것 등이 모두 포함

- 일반적인 건축물은 건축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미적 또는 예술적 표현에 있어서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건축저작물에 해당
- 일반 주택이 아닌 특수한 디자인의 주택, 삼각형 또는 삼각텐트를 기본으로 개성적인 외관 표현을 한 펜션, 개성적인 디자인의 고층아파트 주동의 형태 및 입면도, 아파트 단지 내에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등 건물과 도로, 조경, 운동시설, 놀이터 등의 시설물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각 건물 및 시설물의 구조와 형태를 표현한 단지 배치도, 특이한 디자인의 등대건축, 골프코스 등에 대해서는 건축저작물로서의 창작성 인정

### 1.3 건축물 저작권자의 권리의 범위

- 건축물을 저작물로서 보호하는 취지는 건축물에 의해 표현된 미적 형상을 모방건축에 의한 도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 일반 빌딩이나 일반 주택은 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않지만 예술성이 높은 빌딩, 주택, 절, 공공기관의 건물 등은 사회통념상 미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저작물로 본다.
-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따라 복제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저작물에 있어서도 2차적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 용할 권한을 가진다.
- 저작인격권에는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공표하지 아니할 것인가, 공표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공표권,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성명 표시권,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 유지권 등이 있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 2. 국내 건축설계창작물 인식 및 연구부족과 표절 건축물들

### 2.1 건축설계 창작물의 표절에 대한 인식부족

- 1) 한국건축계 표절에 매우 둔감, 건축관계자들도 모른 척 눈감아주기 일상화
- 2) 건축디자인 표절 문제 발생의 원인(주간동아(2020.02.05. 권기현 기자)
  - 첫째, 원작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보호받기 어려운 친고죄
  - 둘째, 건축 저작권이 뚜렷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음악은 8소절, 건축은 총체적 결과물의 유사성만을 봄. 아파트, 공장, 창고 등 건축계에 관행으로 용인된 요소의 적용 시 표절로 보지 않음

- 셋째, 과거 국내 유명건축가의 건축물 중 상당수가 해외 유명건축가의 작품을 대 놓고 모방 하는 경우가 과거에 비일비재
- 3) 표절 판별기준 모호, 건축전문가 윤리의식 절대 부족

## 2.2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련 건축분야 학술연구 부족

- (1) 최영선, 최재필, 건축표절 논의를 위한 미학의 차용 적용에 관한 연구, 2020, 대학건축학회 논문집, 36권5호
- (2) 윤춘섭, 건축저작물의 속성과 범주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5권2호
- (3) 윤춘섭, 국내 저작권법 중 건축 관련 조항의 개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31권2호
- (4) 윤춘섭, 건축저작물의 촬영 및 영리적 배포에 관련된 국내 저작권법 조항의 개선에 관한 연구, 2009,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6권11호
- (5) 전진삼, 건축물의 저작권 분쟁과 건축가의 지위, 2009, 새얼문화재단 황해분화 제62권
- (6) 정덕훈, 건축물 설계도서의 저작권법상의 권리, 대한건축사협회, 1993, 건축사 1993년 6월호
- (7) 김주덕, 건축과 법률이야기-알기쉬운 건축물저작권 해설, 2020, 건축사, 616권
- (8)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 분석 연구 최종보고서, 2013. 2. 18

## 2.3 건축설계창작물의 표절 건축물들

### 1) 국내 민간건축물 표절사례 - 후진국형 분쟁 비일비재

- (가) 부산기장의 유명 카페 웨이브온과 울산 바닷가의 대형 B 카페
- 준공연도 : 부산 웨이브온 카페(2016.12), 울산 바닷가 대형 B카페(2019.7)
- 관광명소 : 연간 90만명 방문
- 배상청구내용: 업종변경 및 철거요구, 1억8,200만원과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서울서부지원
- 표절내용 : 건축물 연면적(490㎡), 높이(약 11m), 규모(지상 3층), 노출 콘크리트, 맷돌모양, 바닷가 발코니의 모습, 창문형태, 슬라이드 도어의 유리창 외관형태, 3층 바닥 및 계단부분의 원목구성, 콘크리트 조망대 설치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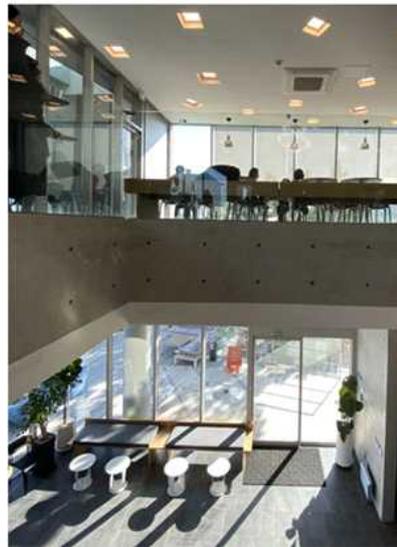
자료출처: 주간동아(2020.2.05), 권재현 기자, 건축표절 시비에 새 이정표 세워질 소송



부산기장 웨이브온 카페 원 작품 정면  
건축가: 이템건축사사무소



표절 작품 정면  
울산 바닷가의 대형 B 카페



웨이브온 2층 발코니



O 커피 2층 발코니

(나) 경주타워 표절사례



국내 건축설계 저작권 침해 분쟁 사례 \* 원작: 왼쪽

이타이준건축연구소 '경주타워' \* 문화엑스포조직위 '경주타워'

- 2004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상징건축물 공모전에서 동남아태권축사사무소의 함상대 함상화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
- 당선작이 이타이준건축연구소(고 유희룡 선생의 아이디어(신라 불탑을 형상화한 유리 타워)로 변경돼 2007년 준공.
- 유 선생과 딸 유이화 ITM건축사사무소장이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두 차례 기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패소.
- 이후 유 선생이 함상심에서 일부 승소. 2017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 확정. 손해 배상과 저작자 명시 표시석 설치 진행.

'Kring' 복합문화공간 \* 'JDS' 면세점

- Kring은 2008년 서울 대치동에 준공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생동건축사사무소가 디자인한 건물 외관의 물동레 무늬가 특징.
- 외장 업체가 운생동건축사사무소의 동의 없이 Kring의 외관을 복제해 2014년 제주도 연동에 준공한 JDS 면세점(현 JSM 백화점) 입면에 사용.
- 한 외장 업체가 Kring의 입면 복사본을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면서 건축주들에게 팔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 운생동건축사사무소가 저작권 침해를 제기하자 JDS 건물주는 건물 안내문에 운생동건축사사무소를 디자인 설계자로 표기하는 것에 합의.

자료출처 : 방정식 기자, {건축설계 표절시비} 알면서도 표절, 다름일면 모르쇠, 월간중앙(2020.04.06)  
<https://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29536>  
 손택균, 임희운 기자, {토요판 커비스토리} 표절천국, 창의서사망진단서,, 동아일보(2014.08.02)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40802/65551749/1>

(다) 한강 인공 섬 조성 공모당선작 표절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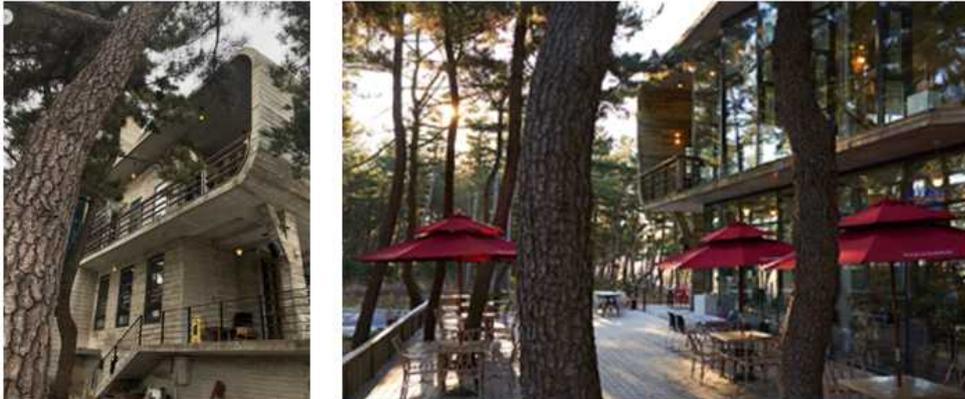


한강 인공 섬 조성 공모 당선작 '한강의 꽃' 해안건축+슐프틀라 콘소시엄(2008)

중국 선양시 인공호수의 '어린이 궁전' 국제공모 당선작 건축가 김영섭 성균관대 교수(2003)

자료출처: 조선일보(2008.4.6) 서울 인공 섬 디자인 표절 시비, 중 선양시 '어린이 궁전' 당선작과 흡사, 박문규 기자

(라) 카페 '테라로사' 건축물 표절 사례



(마) 한강 인공 섬 조성 공모당선작 표절 사례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한 s 종합건설의 아파트(좌측)와 대림산업의 오산 'e-편한세상'(우측) 비교  
 자료출처: 세계일보. 2008.5.1일자, [법알못 디자이너를 위한] 7 기능적인 저작물은 보호하지 않는다

(바) 아파트 단위평면의 표절



저작권 소송이 제기된 아파트 도면  
 출처: [법알못 디자이너를 위한] 7 기능적인 저작물은 모호하지 않는다?(2020.12.30.) 인용

(사) 건축물 내부 공간구성의 표절사례

- 건축공간은 건축주의 고유의 브랜드 vs 법적 사각지대



파주시 대형카페 '더티트링크'(좌) 2018년12월 오픈 / 일산 A카페 (우) 2020년 4월 오픈  
 자료출처 : 더스쿠프, 2호점인가요? 파주 더티트링크의 눈물과 법적 사각지대  
<https://v.daum.net/v/5ed10712396fe13c89bfbb46>

- 더티트링크 카페 대표 : 힘들게 축적해온 브랜드 이미지 훼손되었다 주장
- 연면적 규모 유사 : A 카페 1629.99m<sup>2</sup>, 더티트링크 1352.92m<sup>2</sup>
- 유사점 : 삼각형으로 깎인 건물지붕, 지붕밑 직사각형 창문, 한쪽 벽면의 여러 개의 창, 1층 일직선의 바와 픽업대, 2층 중심의 비움구조, 1,2층을 연결하는 계단식 테이블, 각 카페를 대표하는 포토존, 음료.식사파는 올인원 콘셉트

### 3. 국내 건축현상설계 당선작 원안 변경 및 저작권 침해 (지자체 공공건물들)

#### 3.1 당선작 원안 변경 사례



로컬푸드 당선작 원안  
 자료제공: Γ건축사사무소제공



당선 후 작품 변형  
 자료제공: Γ건축사사무소



황산면사무소 당선작 원안  
자료제공: Γ건축사사무소제공



당선 후 작품 변형  
자료제공: Γ건축사사무소



화장품센터 당선작 원안  
자료제공: S건축사사무소제공



당선 후 작품 변형  
자료제공: S건축사사무소제공

**\* 당선작 원안 변경내용 :**

- 1) 건축연면적 축소 : 1,534.67M2
- 2) 건축공사비의 축소를 위해 건축연면적 축소
- 3) 건축물 규모 축소 : 전면 4층 -> 3층
- 4) 건축물 입면단순화 및 재료 변화
- 5) 회랑부분 제거
- 6) 외부공간 전면조경 -> 잔디밭으로 교체

구 분	기본계획		비 고	
	변경전	변경후		
규 모	건축연면적	12,030.40㎡	10,495.73㎡	△1,534.67㎡
	사업연면적	14,934.48㎡	11,990.45㎡	△2,944.03㎡
	층 수	지상4층	지상3층	지원동, 공장동
	입 주	36개 공장14 사무실12 스타트업10	36개 공장14 사무실12 스타트업10	-
사업비	총사업비	24,812 (국비 16,000, 지방비 8,812)	26,812 (국비 16,000, 지방비 10,812)	증 2,000 (시비부담)
	㎡당 건축비	1,482천원	2,113천원	증 631천원

### 3.2 당선작 원안 변경 사유 (건축사 인터뷰 내용)

- 1) 공사비 부족: 건설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나 기획단계에서 산정된 5년 전 공사비로 추진
- 2) 최종결정권자 바뀌어진 경우(군수 교체 등), 전임군수가 반영한 사항 공사비 증가라든가, 디자인의 경우 다시 보고 결정
- 3) 건축에 관심은 많으나 건축디자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 부재
- 4) 토목직 공무원이 대부분 과장, 국장자리에 있어 건축인식이 부재

<표 1> 연도별 4월 및 최근의 월별 건설공사비지수 동향

(2015년 기준)

	연도별 4월 동향				최근의 월별동향					
	2019	2020	2021	2022	2021년 11	12	2022년 01	02	03	04 <sup>P</sup>
지 수	116.08	117.93	128.65	145.16	138.62	138.89	141.91	142.38	143.74	145.16
전 월 비	0.03%	-0.11%	1.99%	0.99%	0.23%	0.20%	2.17%	0.33%	0.96%	0.99%
전년동월비	4.71%	1.59%	9.10%	12.83%	15.31%	14.04%	14.33%	14.05%	13.96%	12.83%
전년동기비	4.78%	1.84%	3.64%	13.69%	10.45%	11.30%	12.09%	12.80%	13.39%	13.69%

주) 2015년으로 기준연도 변경에 따라 모든 월별 지수 수치가 변경되었으며, 최근 월 공표지수는 잠정치수(Provisional의 'P' 표기)로, 익월 확정지수가 되면서 수치가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

#### \* 2016-2022 물가변동지수



### 3.3 국제 현상설계 당선작의 경우 원안 존중



건축가: 자하 하디드, 서울동대문디자인센터( DDP), 연간 방문객 2,000만명,  
 2006년 예상공사비 1,593억원, 2011년 5,094억원, **3.2배 공사비 상승**  
 DDP는 한국의 대표작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음 / 자하 하디드는 별점을 받지 않음

### 3.4 건설기술 진흥법 별표8 제5호의 문제 - 후진국형 건축정책과 제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별점관리기준9제87조 제5항)
- 공공건축은 매력적 성과물을 통해 미래의 문화적 잠재성을 부각시키는 건축이다.
- ‘공공건축 건축설계공모’를 통해 당선된 건축사에게 수량 및 공사비가 잘못되었다 해 별점을 주는 규정<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 가), 나), 다)

5. 별점 측정기준		
다. 그 밖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기술인등에 대한 별점 측정기준		
번호	주요 부실내용	별점
5)	수량 및 공사비(설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산출의 잘못	
	가) 총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	2
	나) 총공사비가 5% 이상 변경된 경우	1
	다) 토공사·배수공사 등 공사 종류별 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총공사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공사 종류로 한정한다)	0.5

자료출처: 건축사 630(2110) 에디터스 레터, 홍성용, 후진국형 한국 건축정책과 제도, 한국 공공건축의 격 낮춘다

## 4. 국내 건축설계창작물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건축디자인 특허사례

### 4.1 상품특허등록



	<p><b>코디네이터</b> <b>KIM, CHANJOONG</b> CEO, THE_SYSTEM LAB Professor, Kyunghee University</p>	<p><b>Education</b>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스위스 연방공과대학 수학 미국 하버드대학 건축학 석사</p>	<p><b>Experi</b> 서울 한울 건축 헝가리지 Chan Krieger Associates 보스톤 KSWA 경희대 건축대학원 설계전공 초빙 교수 THE_SYSTEM LAB 대표</p>	<p><b>Recognition/Awards</b> 2006 아메리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 대표 건축가 2006 중국 베이징 국제 건축 비엔날레 주목받는 아시아 젊은 건축가 6인에 선정</p>
--	--	--	--	--



한남동 오피스빌딩, 2013, 더시스템랩 김찬중 건축가



한강보행자터널 프로젝트, 더시스템랩 김찬중 건축가



삼성래미안 갤러리, 더시스템랩 김찬중 건축가



MCM 플래그십 스토어, 더시스템랩 김찬중 건축가

## 5. 프랑스의 건축설계 창작물 보호 사례와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

### 5.1 해외의 건축설계창작물의 보호 사례

#### 가) 프랑스의 에펠탑 저작권 보호

- 에펠탑 한해 관광객 700만명, 건축물은 도시의 얼굴이자 국가의 경쟁력
- 에펠탑 관리업체(SETE)의 변 : 에펠탑 야경사진을 SNS에 올리거나 배포하면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 가능
- 건축가 사후 저작권 보호기간 70년, 에펠탑 주경은 1993년에 만료. 야경은 2055년까지 저작권에 걸릴 수 있음(에펠탑 조명 1985년 설치)

자료출처: 월간중앙 1528호(2020.04.06.), [건축설계 표절 시비] 알면서도 표절, 다툼 일면 모르 쇠



나)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유리 피라미드 저작권

- Musee du Louvre 유리피라미드도 관광객의 사적 사진촬영은 가능하지만 상업적 촬영과 이용은 금지하고 있음
- 자료출처: 월간중앙 1528호(2020.04.06, [건축설계 표절 시비])
- 건축의 창작성과 저작권을 강력 하게 보호하는 사회제도와 시민의식이 뒷받침



5.2 해외의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가) 프랑스의 저작권에 의한 건축작품의 보호

- 르 꼬르뷔지에는 건축디자인 ‘직업이 아닌 정신의 전환’이라 설명
- 동일한 관점에서 프랑스의 입법권자와 판사는 건축가들의 작품에 대한 도덕적 권리를 인정, 건축가들 보호
- 프랑스는 1855년부터 건축가 보호 시작, 건축작품을 예술작품으로 간주
- 지적 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Code) L. 121-1조는 “모든 지적 저작물은 장르, 표현 형식, 장점 또는 목적에 상관없이 보호된다”라고 규정
- 조항 L. 112-2는 정신의 작품은 무엇보다도 건축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덧붙임

- 저작권은 저작물과 창작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창조는 필수적이며, 이것이 바로 이 보호가 영원하고 양도할 수 없으며 양도할 수 없는 이유
- 저작권은 창작된 사실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특허나 디자인, 모델과 달리 보증금이나 라이선스 불필요
- 건축가는 건물 정면에 자신의 이름을 명기 할 수 있고, 자신의 승인 없이 수정이나 복제를 거부 할 수 있음
- 건축가는 자신이 만든 작품의 소유자이며 영화나 사진의 형태로 작품을 공개하거나 출판 또는 가이드에 등장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규정
- 자료출처: La protection de l'œuvre architecturale par le droit d'auteur) Aurélie Chapon, Dans Droit et Ville 2013/2 (N° 76), pages 11 à 24 발췌
- 1957년 3월 11일 법에 따라 두 가지 범위의 작업에 보호 부여
  - 첫째, 독창성을 포함하는 모든 건축물
  - 둘째, 건축작업의 기초가 되는 도면과 3차원 모델을 그룹화한 건축관련 작업
- 저작자의 개성을 표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제작된 저작물도 지적재산권법의 보호
- 방이나 창문의 부속품도 지적재산권 코드에 의해 보호될 수 있으며 카탈로그에 복제하려면 저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건축가는 "원본"으로 자격이 부여된 자신의 작업에 대한 저작인격권을 보유
- 건축물의 정면이나 도면 복제물에 자신의 이름을 새길 수 있고 이를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건축가는 공개할 권리, 반성하고 철회할 권리, 자신의 일을 존중할 권리를 가짐
- 건축가는 또한 이용권, 재판매권 등의 경제적 권리를 가짐
- 건축가는 특히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의 작업을 수정하거나 복제하는 것에 반대 할 수 있음
- 건축주가 건축가에게 수수료를 지불한다고 해서 건축가의 동의 없이 건축허가 계획(또는 기타 계획)을 수정할 수 없음
- 공동소유자 조합은 건물의 정면, 발코니 또는 내부 조식을 수정하려는 경우 건축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함 - 건축가는 불법행위(저작물 훼손, 강탈 등)를 끝내고 권리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건축 작품 보호의 한계
  - \* 경우에 따라 건축가의 사전 동의 없이 건물을 변경할 수 있음
  - \* 건물주는 사전 동의 없이 보수공사 또는 건물이 통행인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를 변경할 수 있음
- 프랑스 국무원은 2006년 9월 11일 판결에서 건축가의 사전 동의 없이 경기장을 개조한 지방자치단체를 제재
- 엽서나 관광 가이드에 있는 작품의 복제는 창작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적재산권 코드란?

프랑스의 법은 분명하게 건축가의 저작권을 규율하고 있음  
지적 재산권 코드에 따르면 "계획, 스케치" (조 L. 112-2, 12° 및 L. 112-3 단락3) 및 "(...) 건축과 관련된 작업" (조 L. 112-2, 12 °) 조건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따라서 모델, 스케치 또는 계획을 보호할 수 있음. 그러나 건축 작품 자체에도 보호 기능 존재.

따라서 지적 재산권 코드는 두 가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함.

- 1) **예술적 측면** : 작품이 독창적이고 개인적 창작 기여가 있는 경우, 파리 재판소(TGI Paris, June 19, 1986: GDPD 1987. III. 38)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인테리어 레이아웃"이라고 판결. 특정 너비를 따라 배열된 서로 다른 색상의 수직 타일 스트립과 은색 및 장식된 거울을 병치하는 것과 같이 미리 결정되고 사려 깊은 순서로 서로 다른 요소를 결합하여 자신의 흔적을 남겼다."
- 2) **기술적 측면** . : TI Nîmes, 1971년 1월 26일자 "Keller"에 따르면 건축가는 "순수한 기술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엔지니어가 아니라 형태를 만드는 예술가"로 보호됨. 따라서 산업 혁신도 산업 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함.

## 건축가는 그의 건축 작업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의 혜택을 받고 있는가?

자료출처 : <https://www.legavox.fr/blog/maitre-anthony-bem/droits-architecte-uvre-architectural-e-quot-23777.htm> 에서 발췌

- 지적 재산권 코드는 "건축물, 조각품"을 포함한 모든 "정신의 저작물"이 원본인 경우 보호.
- 지적 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Code) L. 112-2조의 조건에 따라 건축과 관련된 마음의 작품, 건축 작품, 계획, 스케치 및 조형 작품으로 간주. 따라서 지적 재산권법 L. 111-1조의 조건에 따라 건축가는 자신이 창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사람에게 대해 집행할 수 있는 배타적 무형 재산을 자신의 작품에 대해 향유.

- 이 권리에는 가계질서의 속성뿐만 아니라 지적·도덕적 질서의 속성도 포함. 따라서 저작자 또는 그의 승계인의 동의 없이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하는 것은 불법.
- 법원에 따르면 건축가의 계획, 스케치, 모델 및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은 원래 성격을 나타내는 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음( **Cass. 1e Civ 1979년 3월 6일, SARL Le Mas Provençal / Carlier; Cass., 1st civ., 1980년 11월 12일, No. 79-13.544** ).
- 오리지널 작품은 인정된 표현에 따르면 "작가의 개성 이 담긴" 작품으로 원칙적으로 건축작품은 건축가가 작품의 기능과 건축주의 요청에 의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자유롭게 창작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가짐.
- 그러나 판례는 건물의 독창성을 판단하기 위해 "특정한 예술적 성격"과 연속 건축이 아니라는 두 가지 기준을 설정. 저작물이 공공장소에 있더라도, 저작자 또는 그 승계인의 명의 또는 양도인의 동의 없이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 됨.
- 거리, 공공 또는 자연 공간에 위치한 작품을 복제할 권리가 없음.
- 따라서 법원은 이미 저작권 침해로 [Cité des sciences et de l'industrie de Geode](#), [Adrien Fainsilber](#) 또는 [Grande Arche de La Défense](#), Johann Otton Von Spreckelsen의 작품을 기념물의 소명이나 기념물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에 관계없이 사용한 엽서의 출판을 비난할 기회를 가짐.
-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저작권 침해가 없으며 보호 권리가 중단된다고 간주함.
  - 작업이 개별적으로 수행되지 않고 자연 환경에서 수행된 경우,
  - 작품이 배경에 위치한 경우
  - 작품이 사진, 필름 또는 엽서에서 매우 부차적인 위치를 차지한 경우
  - 작품의 표현이 표현되거나 취급되는 주요 주제에 부수적인 경우,
  - 작품이 예술작품이 아닌 공공장소에서 촬영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복제된 경우

모든 의도와 목적을 위해 지적 재산권 코드에 따라 건축가의 착취 권리는 그의 작품을 개인적으로 복사하는 경우 중지되므로 개인이나 가족을 위해 건물의 스냅사진을 찍는 관광객은 건축가의 승인을 구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파노라마의 자유를 프랑스 법에 통합하는 문제였을 때 입법자는 마침내 2016년 10월 7일에 공포된 디지털 공화국에 대한 법률을 통해 보다 제한된 예외를

선택. 비영리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 자연인이 만든 공공 도로에 영구적으로 배치된 건축 작품 및 조각품은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

따라서 개인은 상업적 목적의 성격이 없는 한 저작자 또는 후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건축 작품의 사진을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음.

## 6. 인터넷, AI시대의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 침해 동향과 문제점

### 6.1 인터넷을 통한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적재산권 침해 동향

가) 충칭 해커들이 파일이나 디지털 도면 입수 의심

자하 하디드 건축설계사무소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사토시 오하시(Satoshi Ohashi)는 수도에 건설된 39층 타워의 "충칭 해커들이 파일이나 디지털 도면을 입수했다"고 의심한다고 [독일 주간지 Der Spiegel 에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문서들에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매우 유능하다면 비슷한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그것은 대략적인 사본으로 남을 것입니다."

"건축적 측면에서 웹사이트 디자인, 심지어 광고 포스터까지 Meiquan 22nd Century는 Wangjing Soho의 사본입니다. 그런 표절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SOHO China의 이사 Zhang Xin이 한탄합니다. 그녀의 남편인 회사 이사회 의장인 Pan Shiyi는 차례로 Zara Hadid의 건축 회사와 논의한 후 Soho China가 그의 권리를 행사하고 "범법자를 정의의 심판"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리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 "중국은 모방의 나라 "

Zhang Xin은 "모든 사람들이 중국은 모방의 나라이며 모든 것을 모방할 수 있다고 주장. 그러나 중국은 이론적으로 최소한 지적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가지고 있지만 침해는 중국에서 일반적 현상. 현재 두 회사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 중국 법원은 유사점이 순전히 우연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China Intellectual Property 잡지에 따르면](#)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하면 피고인은 벌금을 내야 하지만 건물을 철거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원작: Zaha Hadid의  
Wangjing Soho



표절작: Meiquan  
22세기 프로젝트



원 작: Dancing House, 프라하, 체코공화국,  
architects Frank Gehry  
+ Valdo Milunic, 1999



표절작: Bahria Town, Heritage Hotel

## 6.2 메타버스, AI 인공지능시대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보호

- 메타버스 시대에 건축물 등의 입체모형이나 설계도면 등을 포함한 실내공간정보 등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35조 및 제23조 등의 제한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이철남, 메타버스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디지털트윈의 공간정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2021, 31권4호, 경영법률)
- 메타버스 서비스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창작 도구 혹은 스스로 획득한 도구를 통해 사람들은 건물을 짓고 소품을 만드는 등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창작물의 성격, 형태, 권리의 귀속 등에 따라 저작권 침해 및 사용 책임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다.(방준성, 안성희, 메타버스 창작물에 대한 연구, 2022, 홍익법학 제23권 제3호)
- 메타버스에서는 실제와 똑 같은 건축물을 만들 수 있고 이때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분쟁 소지가 큼. 일본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보호와 브랜드 구축을 위해 의장법을 개정해 건축물, 인테리어, 화상의 의장이 새롭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함
- 저작권위원회는 연구와 관련해 “건축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보호 범위 및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저작권법의 해석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메타버스, 공간정보서비스 등에서 구현되는 건축저작물과 관련한 법적 쟁점 분석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가상공간에서의 건축저작물의 안정적 이용을 모색하는 등 건축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힘(박관희, 저작권위원회 ‘건축저작물의 법적 쟁점 및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착수 □ 건축저작권 보호 방안 마련, 건축사신문, 2022.10.21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3897>)
- 미래의 메타버스는 종종 우리의 현실 세계의 이미지로 생성된 가상 세계로 제시되며, 가상 현실은 현실의 어느 정도 충실한 변형이 된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에서 우리의 디지털 아바타는 실생활에 존재하는 유명건축가의 집을 짓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상 주택의 3D 모델링은 논리적으로 단순한 기술 서비스로 분석되어야 하며, 메타버스에서 가상 하우스를 구축할 목적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복제됨으로써 저작권 보호에 민감하지 않다.
- 그러나 문제의 창작물에는 3D 모델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결론에 이르기에는 너무 이르다. 메타버스로 인한 전투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출처 : Xavier PRÈS 의 "Metavers: 가상 현실과 전투 순서의 저작  
<https://blip.education/metavers-la-realite-virtuelle-et-le-droit-dauteur-en-ordre-de-bataille>

## 7. 종합 및 제언

첫째, 건축물의 디자인과정에서 관련 프로젝트와 유사한 건축물에 대한 사례분석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아이디어의 차용, 건축물의 형태, 평면, 외관, 재료, 색상, 구조 등의 표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따라서 건축사, 건축현장을 중심으로 한 실효성 있는 표절 방지대책 마련 및 건축설계 창작물 표절 관련 주요 평가항목을 마련하고, 관련 세부사항과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건축주들은 건축설계 프로젝트 주문 시 건축사들에게 동일한 작품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건축주들에게 건축물 불법복제에 따른 법적 제재 등 인식전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필요하다.

셋째, 해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전문가들 조차 건축표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이로 인해 후진국형 분쟁들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건축표절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건축사 윤리강령 강화, 건축설계 창작물 표절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건축 표절에 대한 건축사협회 차원에서의 강력한 징계와 처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넷째, 건축현상설계 당선작에 대한 법적 지위 및 현상설계공모 당선작 변형 방지대책 마련을 통한 건축사의 법적, 제도적 위상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건축현상설계 공모 지침서 작성시 미래의 물가변동을 고려한 적정 건축공사비의 산정과 건축허가권자인 공무원들의 건축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섯째, 인터넷, AI, 메타버스시대에 건축저작물 지적재산권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학계의 관심과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근원적 문제해결을 위한 법학, 건축학, 정보통신학 및 관련 학문분야의 다학제 간 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 건축물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주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인터뷰와 현장조사가 필요하다. 이는 미래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며, 법과 제도마련을 위한 토대가 된다.

## [참고문헌]

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 2017

방준성, 안성희, 메타버스 창작물에 대한 연구, 2022, 홍익법학 제23권 제3호

윤진수, 건축창작물의 지적재산권 보호체계에 관한 연구, 광운대대학원 법학과 박론, 2018

이철남, 메타버스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디지털트윈의 공간정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2021, 31권4호, 경영법률

건축사 616(2008) 김덕주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건축과 법률 이야기,  
알기 쉬운 건축물저작권 해설, <https://kiramonthly.com/archi-and-law-2008/>

건축사신문,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누구 것인가?, 2019.07.16. 장영호기자

월간중앙 1528호(2020.04.06.), [건축설계 표절 시비] 알면서도 표절, 다툼 일면 모르쇠,  
<https://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29536>

주간동아(2020.02.05.) 권기현 기자, 건축 표절 시비에 새 이정표 세워질 소송,  
<https://weekly.donga.com/Main/3/all/11/1970467/1>

IP Daily 지식재산 전문미디어, 주상돈, ⓐ 카페 '테라로사' 건축물 저작권 소송(2020년),  
2022.1.16.일자,

Xavier PRÉS 의 "Metavers: 가상 현실과 전투 순서의 저작

<https://blip.education/metavers-la-realite-virtuelle-et-le-droit-dauteur-en-ordre-de-bataille>

울산 MBC라디오 <김연경의 퇴근길 토크> 표준FM97.5(18:10~19:00), 울산의 한 카페, 부산의  
유명카페와 외관 닮아 저작권 침해 논란, 건축 전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해야

<https://www.ipdaily.co.kr/2022/01/16/23/24/40/18553/%EA%B7%B8%EB%95%8C-%EA%B7%B8-%EC%82%AC%EA%B1%B4-%E2%91%A9-%EC%B9%B4%ED%8E%98-%ED%85%8C%EB%9D%BC%EB%A1%9C%EC%82%AC-%EA%B1%B4%EC%B6%95%EB%AC%BC-%EC%A0%80%EC%9E%91%EA%B6%8C-%EC%86%8C/>

La protection de l'œuvre architecturale par le droit d'auteur Aurélie Chapon, Dans Droit  
et Ville 2013/2 (N° 76), pages 11 à 24

<https://www.filecys.fr/2019/06/10/architecte-comment-protoger-ses-plans-et-ses-creations/>

IMMOBILIER Entreprises magazine,

<https://www.entreprisesmagazine.com/fr/articles/les-droits-dauteur-des-architectes>